

해외출장 결과 보고

2009년 12월 14~16일 미국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자: 김명환 (미래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장명: FAPRI baseline 검토회의 참석 및 L.A. 화훼도매시장 물류 시설 조사
2. 출장목적:
 - 1) FAPRI의 2010년 baseline 사전전망치에 대한 토론, 한국판 세계 농업모형연구에 대한 의견 조율, 국제 농축산물 수급분석 전문가들과의 network 구축
 - 2) L.A. 화훼도매시장 유통현황, 물류시설 조사
3. 출장자, 기간, 지역
 - 출장자: 김명환 미래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기간: 2008년 12월 14(월) ~ 12월 16일(수)(2박 3일)
 - 지역: 1) 2/14-15: Marriott Washington at Metro Center, 컨퍼런스룸, Washington D.C.,
2) 2/16: 766 S. Wall St. LA, CA 90016 일대

II. FAPRI 사전전망회의

- 세계 주요 농업전망기구는 FAPRI, USDA-ERS, OECD임.
-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미주리, 아이오와 주립대학 공동의 농업전망모형 연구소로서, 매년 3월에 향후 10년간 곡물, 축산물 수급과 가격 전망치를 발표함.
 - 아이오와: 국제시장 전망
 - 미주리: 미국시장 전망
 - 인근의 주립대학들로서 알칸사(쌀), 텍사스텍(면화), 뉴멕시코(과일) 등이 공동연구로 전망함.
- 이를 위해 전년 12월에 연구자들이 워싱턴디씨에 모여 사전

(preliminary) 전망치에 대한 전문가(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 농식품업체, 국외 전문가 등)들과 토론, 수정방향을 논의함.

- 2개 컨퍼런스룸에 각 20명, 50명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의견 교환

	Salon D	Salon B&C
12/14 12:30-2:30	Fruit & Vegetables	Cotton
2:45-5:00	Sugar	Rice
12/15 8:30-11:30	Dairy	Feedgrains
12:30-1:30	Livestock & Poultry	Biofuels
1:30-4:30		Oilseeds

- 최근 수년간의 FAPRI의 곡물 전망치를 개관하면,
 - 2007년 1월 발표때까지 국제 곡물가격을 낮게 전망하였으나
 - 2006년말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 2008년 1월 발표치는 향후 10년간 곡물가격 전망을 전년 발표치 대비 20-30% 높게 전망
 - 2008년 세계경제부진이 본격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2009년 1월 발표치에서도 계속 강세로 전망
 - 2009년말 현재 경제가 회복되고 증산이 예상되면서 2010년 이후 10년간 가격 전망치를 2007년과 2009년 발표치의 중간 수준으로 하향조정함.

- 세계 밀 전망(Iowa State Univ.)
 - 캐나다와 EU의 밀 재배는 rapeseed, 보리와 가격경합관계
 - 중국은 장기적으로 약간의 순수입 전망
 - 인도는 자급 전망; 2007-09년 밀 가격 높아서 증산 가능해 보였으나, 정부의 가격 억제로 증산 유인 없음.

밀	09/10	10/11	19/20
생산량(백만톤)	672	661	718
가격(US\$/ton, FOB Gulf)	213.00	214.85	239.98
기말재고율(%)	28.89	28.89	27.14

○ 세계 옥수수 전망(Iowa State Univ.)

- Biofuel에 대한 수요, 원유와의 가격비 등 전망 견해가 다양
- 미국의 경우, 자동차 연료중 바이오에타놀 사용량이 2000년 10%에서 2019년 15%로 상승하고, 유류에 대한 상대가격은 2000년 110%에서 2019년 60% 전망
- 사료용과 바이오연료용 소비가 수년내 같아질 전망
- DDG(바이오연료 추출후의 사료용) 이용효율과 상대가격 문제

옥수수	09/10	10/11	19/20
생산량(백만톤)	790	800	909
가격(US\$/ton, FOB Gulf)	150	158	172

○ 국제 쌀 전망(Univ. of Arkansas)

- 수년간 가뭄으로 감소된 호주 쌀 재배면적은 중기적으로 4-5만 ha, 생산량은 30-40만톤으로 의견 조율
- 한국 소비량과 생산량 약감소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 제기 (소비 감소속도 지속, 대북지원 중단, 생산은 쿵으로 유도정책 등)

쌀	09/10	10/11	19/20
생산량(백만톤)	432	448	478
교역량(백만톤)	30	36	41
가격(US\$/ton, FOB Gulf)	532	488	603
기말재고율(%)	19.67	21.52	25.10

○ 기타

- 청과물 전망에 대한 방법론과 토론은 기대 이하의 수준으로, 세계는 고사하고 미국내 수급과 가격 전망도 안 되는 수준이었음. 날씨 변화가 심하여 관측이 불가하다는 원론적 토론이고, 미국내 지역별 재배 특징의 변화와 남미의 대미국 수출국들의 동향 파악에 그치는 상황임.
- Texas A&M에서 조사발표하는 표준농가경제관측(Representative Farms Economic Outlook)은 향후 5년간 주요품목별, 주산주별 표준적 농가(전업농 위주)의 농가경영(생산비, 소득 등)을 전망하여

그린, 앰버, 레드의 경고를 하는 것임. 우리 연구원에서도 2000년대 중반에 이를 시도한 바가 있으나 지역별 통계 미비로 소기의 성과를 못낸 경험 있음.

- 우리 연구원의 국내농업모형 KASMO는 1990년대 중반에 개발되어 유지발전되고 여러 가지 전망과 정책실험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세계농업모형이 없어 국제가격을 외생적으로 가정하여왔음, 이제 한국은 무역대국이므로 소국 가정을 벗어나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농업모형을 개발하여 보유하여야할 필요가 있음.
- FAPRI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농업모형을 개발하는 원칙은 연구원 차원에서 이미 세워짐. 구체적인 로드맵을 FAPRI의 Scott 교수와 지속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금년중에 프리리미너리 프로포잘 미팅을 갖고, 내년에 과제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함.
- 우리 연구원이 방대한 국가별 모형, 정책변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FAPRI가 한국판 세계모형 개발을 주도하고, 거기에 연구원 인력을 교육하며, 2-3년마다 모형갱신을 하도록 장기계약하는 방식을 고려함.

Ⅲ. LA 꽃 도매시장

- LA 꽃도매시장은 LA downtown의 755 S. Wall St.와 766 S. Wall St.의 서로 길 건너편의 두 건물에 있음.. 755번지는 2층건물로 1층에 꽃도매상점포, 2층은 관련점포들이 입주해있음. 766번지는 1층건물로 꽃도매상들이 입주해있으며, 그 옆 건물에 관련점포들이 있음.
- 운영형태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꽃시장과 같이 개별 도매인들이 점포를 임대하여 매매를 하며, 양재동화훼공판장처럼 중도매인에 의한 경매방식이 아님.
- 두 주건물내 꽃 도매상은 100여명이며, 인근 타 건물들 1층에 도매

점포들이 10여개 있음.

- 절화류가 90여곳으로 대부분이며, 분화류는 10여곳임. 점포 크기는 10평 정도이고 2평 정도의 냉장실이 딸려있음. 분화류 매장은 커서 2-3점포를 터서 씀.
- 미국의 꽃 소비는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이며, 월마트 등의 대형할인점이 꽃을 취급하면서 이들 꽃전문도매상들의 취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함. 분화류 소비는 증가추세라고 함.
- 장미는 주로 에쿠아도르(해발 3000m 온실에서 1년내 출하)에서 각도매상들이 항공편으로(4시간 소요) 수입해오며, 난류도 중남미에서 자연산, 재배난 등이 수입됨.